

성인간호학 영역에서의 간호중재논문 내용 분석

서문자¹⁾ · 정재심²⁾ · 오효숙³⁾

¹⁾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²⁾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간호교수, ³⁾대불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nalysis on Content and Trend of Nursing Intervention Studies Published in Adult Nursing Area

Moon Ja Suh, R.N., Ph.D.,¹⁾ Jae Sim Jeong, R.N., Ph.D.²⁾ & Hyo Sook Oh, R.N., Ph.D.³⁾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²⁾Clinical 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³⁾Professor, Dept. of Nursing, Daebu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his descriptive study was performed to analyse the trends of nursing interventional studies in adult nursing area.

Method : All interventional studies o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Society', fifty three articles, from 1989 to 2000 were collected and reviewed.

Result : The research subject were patients in 38(66.7%) and 81.8% of researches was performed in hospital environment. There was only one true experimental design and most of articles(79.2%) were designed by quasi-experimental method. Only 17% of articles have theoretical framework and 73.6% of articles described research hypotheses. The data collection methods for variables were as follows : Psychosocial measurement 60.8%, physiological measurement 25.7%, and observation 13.5%, respectively. Lecture(16.7%), audio-visual(16.7%), and book, pamphlet, or leaflets(13.6%)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instruments of the interventions. Behavioral domain(60.3%) and Physiological : Basic domain(29.3%) were the most common, when the interventions were classified by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Physiological(50.8%) and psychosocial variables(49.2%) were the two major dependent variables.

* Corresponding author : Moon Ja Suh,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 : 82-2-740-8817 Fax : 82-2-765-4103 E-mail : suhmj@snu.ac.kr

Conclusion :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obtained, the nursing intervention studies in adult nursing area have been tested with quasi-experimental studies through clinical trials. For the development of clinical nursing practice and advancement of nursing theories, the amount of interventional studie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quality of research methods refined more to develop nursing science and practice in adult nursing area.

Key words : nursing research, interventional studies, analysis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성인간호학 분야의 연구 중에서 간호중재를 적용한 연구는 간호의 실무적 발전과 간호이론 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간호중재 연구는 실험연구를 통하여 효과와 결과가 검증되고 가시화될 수 있는 증거중심의 연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간호중재 연구를 통하여 환자간호를 위한 원 인제공과 결과의 연관성이나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적용된 간호중재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간호실무적용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 함으로써 간호중재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분석 하는 것은 간호학의 실무와 이론 발달에 필수 적이다.

국내의 간호중재연구의 빈도는 조금씩 높아 지고 있는 경향으로 Oh, Sin, & Kim(1992)은 국내의 경우 1980년 초부터 실험연구의 비율이 비실험연구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고, Choi 등(2000)도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수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이후 간호중재의 유용성을 실험한 연구가 뚜렷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간호중재 실험연구는 조 사연구에 비하여 현저히 빈도가 낮다.

즉, 대한간호학회지의 경우 1990년대에는 총 연구 중 실험연구가 17.4%에 불과하였고(Choi 등, 2000), Suh 등(2001)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12년간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중 실험연구는 16.1%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한 Suh(1996) 등은 국내 여러 학회지의 논문 중 간호중재연구의 경우 간호중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 작업과 연구주제별 분석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메타분석이 요구된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간호중재 실험연구는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호중재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논문 들은 있었으나 간호중재 연구만을 대상으로 적용한 중재방법이나 결과 변수 및 실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목적

성인 대상 간호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학회지 중 국내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성인간호학회지』에 지난 12년간 발표된 논문 중 간호중재 연구의 내용과 경향을 분석하여 향후 성인간호학 영역에서의 간호중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회지』 창간호(1989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에서 간호중재를 적용한 연구 총 53편을 전수조사하여 내용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분석도구

본 연구를 위해 기존의 문헌분석과 연구자간의 합의과정을 통해 개발한 분석도구를 이용하였다. 합의과정은 간호대학 대학원과정에 있는 10명의 연구원이 논문분석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5차례 세미나를 하였으며 도구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간호학교수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재검토한 후 분석도구를 개발하였다. 분석내용으로 연구년도, 연구방법, 이론적 기틀, 연구가설, 연구장소,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 수, 간호중재, 중재시 사용도구, 간호중재대상자, 결과변수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하여 SPSS 8.0으로 빈도와 백분율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도별 발표논문 수

『성인간호학회지』의 연간 발행부수는 1989년 창간호의 1호부터 시작하여 2000년 현재까지 게재된 총 논문 330편 중 간호중재 적용논문은 총 53편이었다(Table 1). 성인간호학회지의 초창기에는 간호중재연구가 1~4편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이후부터 전체 논문편수가 증가되면서 간호중재논문의 게재수도 증가되었다. 지난 12년간 전체적으로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간호중재연구는 전체 연구의 16.1%였다.

2. 연구논문의 이론적 배경

연구의 중심이 되는 이론적 기틀이 제시된 논문은 9개(17.0%)에 불과하였고 연구가설이 제시되어 있는 논문은 39개(73.6%)였다(Table 2).

3. 연구설계

순수실험연구는 1994년의 무작위 통제군 전후 실험설계로 1편에 불과하였고 유사실험연구가 42편(79.2%)으로 대다수였으며, 원시실험연구는 10편(18.9%)이었다. 유사실험연구의 경우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Table 1. Research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Society

Year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Total
Total No. of researches	5	8	6	15	15	22	19	28	41	44	68	50	330
No. of intervention researches(%)	2 (40.0)	1 (12.5)	0 (0)	1 (6.7)	2 (13.3)	3 (13.6)	2 (10.5)	4 (14.3)	11 (26.8)	5 (11.4)	11 (16.2)	11 (18.6)	53 (16.1)

Table 2. Description of theoretical framework and hypotheses

(N=53)

Item		N(%)
Theoretical framework	described	9(17.0)
	not described	44(83.0)
Hypothesis	described	39(73.6)
	not described	14(26.4)

Table 3. Types of research designs

(N=53)

Types of research designs	N(%)
True experimental design	1(1.9)
Quasi-experimental design	42(79.2)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9(17.0)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11(20.8)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13(24.5)
nonequivalent control group time series	4(7.5)
Not described or unable to classify	5(9.4)
Pre-experimental design	10(18.9)
one shot design	1(1.9)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9(17.0)
Total	53(100.0)

group pretest post-test)나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시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가 45.3%였다(Table 3).

4. 연구대상자의 유형과 수 연구수행장소 특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38편(66.7%)으로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 검사환자, 치료적 시술을 받는 환자, 수술환자 등으로 나타났다. 수술 환자의 경우는 특정 수술환자보다는 일반적인 수술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대조군을 포함하여 평균 56명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은 500명이었고 최소값은 10명이었다. 연구 장소는 병원(81.1%)이 지역사회(17.0%)보다 훨씬 많았다(Table 4).

Table 4. Characteristics and number of research subject and research place

Category	Item	N(%)
Types of subject ¹ (N=57)	patient	38(66.7)
	healthy person	7(12.3)
	family member	2(3.5)
	medical person ²	10(17.5)
total		57(100)
Number of subject (N=53)	mean	55.9±67.1
	maximum	500
	minimum	10
Research place (N=53)	hospital	43(81.1)
	community	9(17.0)
	hospital and community	1(1.9)

¹Research subjects were counted multiply.

²Nurses, nursing students, nursing professors, medical doctors, and Chinese medicine doctors were classified as medical person.

5. 변수측정 방법

변수의 측정 방법은 사회 심리적 측정법과 생리적 측정법, 관찰법의 순으로 이용하였는데, 한 논문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변수 측정 방법을 적용한 논문이 20편(35.1%)이었다(Table 5).

Table 5. Methods of variable measurement (N=74)

Types	N(%)
Physiological measurement	19(25.7)
Psychosocial assessment	45(60.8)
Observation	10(13.5)
Total	74(100.0)*

*The types of measurements were analysed in 53 studies

6. 간호중재 적용 방법(간호중재 제공자, 제공횟수, 도구, 대상자 그룹)

간호중재의 제공자는 연구자가 직접 시행한 경우가 20편(37.7%)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재 제공자가 누구인지 제시하지 않은 논문도 17편(32.1%)에 달하였다. 간호중재를 개인별로 제공한 경우가 36편(67.9%)이었고, 그룹으로 제공한 경우는 17편(32.1%)이었다. 중재제공 횟수는 한 번이 가장 많아서 16편(30.2%)이었으나, 중재 제공 횟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18편(34.0%)이었다.

간호중재 제공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강의와 시청각 교재가 가장 많아 각각 11편(16.7%)이었고 책자나 팸플릿 등을 사용한 경우가 9편(13.6%)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외에 연구자가 고안한 기구를 사용하거나 지지그룹, 손을 이용한 접촉, 전화 지지, 얼음 용액 등이 중재 도구로 사용되었다. 한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중재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로 계산하였다(Table 6).

Table 6. Provider, providing methods, frequency, and instruments of nursing interventions

Category	Item	No. of researches (%)
Provider (N=53)	Researchers	20(37.7)
	Nurses	5(9.4)
	Researchers and nurses	5(9.4)
	Researchers and assistant	6(11.3)
	Not described	17(32.1)
Providing methods (N=53)	Individual	36(67.9)
	Group	17(32.1)
Frequency (N=53)	Once	16(30.2)
	Twice - five times	11(20.8)
	Six times - ten times	4(7.5)
	More than eleven times	4(7.5)
	Not described/unable to count	18(34.0)
Instruments (N=66)	Lecture	11(16.7)
	Audio-visual	11(16.7)
	Book, pamphlet, or leaflets	9(13.6)
	Special equipment*	8(12.1)
	Support group	7(10.6)
	Hand or supportive contact	6(9.1)
	Telephone support	5(7.6)
	Ice/gargling solution	4(6.1)
	Others**	5(7.6)
	Total	66(100.0)***

*Physiologic, biofeedback equipment, or other specially designed equipments were classified in this category.

**Others : medication 1, music 1, diabetes camp 1, hyperthermia blanket 1, tape relaxation 1

***Instruments were counted multiply when more than two instruments were used.

7. 간호중재 분류체계(NIC)에 의한 간호중재의 종류와 빈도

간호중재의 종류는 아이오와대학에서 개발된

NIC(Nursing Interventions Classification)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각각의 중재를 세분류하기는 어려웠고 수준 1영역(level 1 domain)과 각기 도메인의 수준 2군(level 2 classes)까지만 분류하였다. 분류결과, 53건의 연구에 대하여 총 58건의 중재가 시행되었으며, 이 중 행위 영역(behavioral domain)이 가장 많아 35회(60.3%)로 나타났고 다음은 생리 : 기본영역(physiologic : basic domain)으로 17회(29.3%)였다. 생

리 : 복합영역(physiologic : complex domain)이나 안전 영역(safety domain)은 각각 2회, 1회만 적용되었다.

간호중재 분류체계(NIC) 틀에 의해 구분하기 어려웠던 중재는 침술치료, 당뇨캠프, 간호사의 교대근무 3건이었다. 행위 영역(behavioral domain)에서는 환자교육과 적용 지지가 가장 많이 적용되어서 각각 18건, 7건이었다. 그 외의 중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적용된 경우

Table 7. Contents and frequency of nursing interventions categorized by NIC* (N=58)

Level 1 domains N(%)	Level 2 classes	Total(N)	Type and frequency(N)
Physiological : basic 17(29.3%)	A. activity and exercise management	4	exercise therapy(3), active walking(1)
	B. elimination management	1	pelvic floor exercise(1)
	C. immobility management	4	positioning(4)
	E. physical comfort promotion	3	hot/cold application(1), touch(back massage)(1), touch(1)
	F. self-care facilitation	5	oral ice care(1), gargling(3), oral care(1)
	Physiological : complex 2(3.4%)	H. drug management	2
Behavioral 35(60.3%)	O. behavior therapy	4	music therapy(3), assertiveness training(1)
	P. cognitive therapy	1	reminiscence therapy(1)
	Q. communication enhancement	1	discussion(1)
	R. coping assistance	7	support therapy(4), consultation(1), values clarification(1), self-efficacy training(1)
	S. patient education	18	education(9), providing information(7), providing information and education(1), discharge education(1)
	T. psychological comfort promotion	4	relaxation therapy(4)
Safety 1(1.7%)	V. risk management	1	restraint(1)
Not classified 3(5.2%)			acupuncture(1), diabetes camp(1), shift work(1)

* NIC :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들이다(Table 7).

8. 결과변수의 종류와 빈도

한 연구에서 측정된 결과변수는 평균 2.4개였으며 3개인 경우가 가장 많아 21편(39.6%)이었고, 다음이 1개 16편(30.2%), 2개 9편(17.0%)의 순이었다.

측정된 결과변수의 유형은 신체적 변수가 65개(50.8%), 사회심리적 변수가 63개(49.2%)로 총 128개이었다. 신체적 결과변수 중에는 생화학적 생리지수가 16개, 활력징후 14개, 구강증

세 10개, 통증 7개 순으로 측정되었으며 사회심리적 변수 중에는 불안이 9개로 가장 많았고 지식 6개, 자가간호와 불쾌감이 각각 5개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외에 스트레스, 우울, 역할이 각각 4개, 삶의 질 3개로 측정되었으며 그 이외 측정된 결과 변수들도 매우 다양하였다(Table 8).

IV. 논 의

간호중재는 성인간호학 영역에서 간호실무의

Table 8. Types and frequency of outcome variables

(N=128)*

Type N(%)	Variables(N)			
Physiological variables 65(50.8)	Biochemical indexes	16	Physical strength	1
	Vital signs	14	Body function	1
	Oral symptoms	10	Frequency of going out	1
	Pain	7	Dysuria	1
	Number of symptoms	3	Exercise duration	1
	Body weight	2	Activity	1
	Bed sore	2	Perceived health status	1
	Urinary incontinence	2	Discomfort	1
	Fatigue	1		
Psychosocial variables 63(49.2)	Anxiety	9	Uncertainty	1
	Knowledge	6	Controllability	1
	Self-care	5	Efficiency	1
	Discomfort	5	Health problem	1
	Stress	4	Cognition	1
	Depression	4	Physical health	1
	Role	4	Rate of error occurrence	1
	Quality of life	3	Burden	1
	Attitude	2	Dementia behavior and	
	Self-efficacy	2	Emotional status	1
	Nursing activity	2	Subjective reaction	1
	Self-esteem	2	Inability	1
	Satisfaction	1	Objective burden	1
	Coping	1	Environmental disorder	1

* The outcome variables were analysed in 53 studies

본질적 요소로서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 간호중재 개발의 중요한 단계는 임상적 적용과 시도로 간호중재 방법과 이론적 배경이 임상적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인간호학 분야에서 지난 12년간 어떠한 간호중재 적용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연구방법과 측정된 결과변수는 어떠한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간호중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총 330편 중 간호중재 연구논문 총 53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간호중재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2000년 현재까지 12년간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간호중재 연구는 전체 게재율이 16.1%(Suh 등, 2001)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하다고 보겠다. 이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아도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연간 1~4편 정도이었고 1997년에 11편으로 증가되었고 1999년과 2000년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간호실무와 이론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 연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연구가설은 73.6%의 논문에서 제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간호계 석·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Kim 등(1994)의 연구에서 나타난 72.7%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간호중재를 적용하는 유사실험 연구에서 가설설정은 확률적 통계적 검증을 위해 필요하고, 지면상 기술되지 않았다 해도 가설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필요하므로 실험연구에서는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설정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간호중재 연구논문의 구성에서 이론적 기틀은 연구의 과학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7%만이 제시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론적 기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Choi 등(2000)이 『대한간호학회지』의 모든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1990년대 논문 중 42.8%의 논문에서 이론적 기틀이 제시되어 있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분석의 경우 『성인간호학회지』의 초창기부터 전수를 분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고 한편 최근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학회지 지면의 제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간호중재 적용을 위한 과학적이며 이론적인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간호중재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맥락이 제시됨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이론적 기틀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지면을 많이 점하는 문제가 있다면 설명만으로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간호중재의 근거를 제시하여 향후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중재 적용을 통해 실무적인 간호이론을 제시하기 위해 간호중재 연구에서 연구의 개념들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간호중재연구를 디자인할 때 무작위 할당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는 것은 실험연구의 기본적인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분석에서 순수실험연구는 단 한 편에 불과하였고 대부분(79.2%) 유사실험연구로 나타나 순수실험연구가 크게 부족함이 나타났다. 이는 Choi 등(2000)이 분석한 논문에서 1990년대 『대한간호학회지』의 실험연구 논문 104편 중 순수실험연구는 8편(7.7%)에 불과하다고 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주로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상황에서 무작위 할당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겠지만 가능한 순수실험연구를 행하려는 연구자의 엄격함이 필요하겠다. 다만, 간호현장의 특성상,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실험연구를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실험연구를 보다 잘 통제되고 조작화하며 무작위 표집방법을 철저히 시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분석에서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환자가 66.7%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위논문 중 실험

연구만을 분석한 Kim 등(1994)의 연구에서 82%로 보다 적어 학위논문보다 환자 비율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한간호학회지』 전체 논문을 분석한 결과(Choi 등, 2000)에서 환자대상 연구가 32%인 것과 비교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환자대상 연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서술연구보다는 중재연구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간호중재의 제공자는 주로 간호연구자 자신(37.7%)이었고 집단보다는 개인으로 실시되었으며 1회 적용이 가장 많았고 횟수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34%이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중재연구의 실험방법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간호중재 연구에서 나타난 중재 제공의 방법과 빈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실험연구의 특성이 중재를 제공하고 이 중재는 가능한 많은 효과를 나타내도록 조절하여야 하는데 간호학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정도의 중재량과 빈도, 방법에 대하여 계량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선행연구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Suh 등(1996)도 중재연구를 분석하면서 인지적 중재와 사회적 중재는 매 회를 기준으로 운동중재와 감각적 중재는 5회를 한 단위로 하여 분석하였다고 하면서 중재횟수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재의 빈도나 방법을 분석하면서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중재연구의 결과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효과적인 중재가 제공 횟수나 방법, 심도의 차이로 인하여 비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연구된 간호중재는 NIC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NIC은 Iowa대학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433개의 간호중재에 대한 표준화된 용어로 추상수준에 따라, 가장 추상적인 단계가 6개의 영역(domain), 중간정도의 추상단계인 27개의 군(class), 가장 구체적 단계인 433개의 간호중재

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영역(domain)과 군(class) 수준까지만 분류하였는데, 행위영역이 가장 많이 적용되어 60.3%였고, 다음이 생리적:기본영역으로 29.3%로 나타났으며, 생리적:복합영역이나 안전영역은 매우 적었다. 이는 병원간호사를 중심으로 실제 임상현장에서 간호중재 분류체계(NIC)에 근거한 간호중재 분석을 수행한 Yom(1999)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는데, Yom(1999)의 연구에서는 생리적:기본영역, 건강체계영역, 생리적:복합체계영역, 안전영역, 행위영역, 가족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NIC에 의해 분류가 어려운 간호중재는 침술치료, 당뇨캠프, 간호사의 교대근무 등으로 나타났다는데, 향후 이러한 중재들이 기술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석·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Kim 등(1994)의 연구를 보면, 간호중재로 정보제공 및 교육 41.5%, 지지 16.9%, 전환요법 15.4% 간호처치 14.7% 순으로 나타났고 Suh 등(1996)의 연구는 Snyder(1992)의 독자적 간호중재 목록에 의해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인지적 중재, 운동중재, 사회적 중재, 감각적 중재의 차례로 나타났고 인지적 중재에서 정보제공 및 교육이 가장 많고, 운동중재에서는 이완요법, 사회적 중재에서는 지지집단, 감각적 중재에서는 온·냉요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행위영역에서의 환자교육과 대처지지가 가장 많이 적용되었고, 다음이 생리적:기본영역의 자가간호 촉진, 활동 및 운동관리 등으로 나타나 다른 연구와 유사하게 환자교육이나 지지간호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중재연구에서 중재방법의 분류에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어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재연구가 간호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여 보면 추후로 간호중재의 분류와 방법의 표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중재 연구에서 결과변수의 종류는 신체적인 변수(50.8%)와 사회심리적 변수(49.2%)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신체적인 결과변수는 생화화적인 생리지수, 활력징후, 구강중세 등이었고 사회심리적인 종속변수는 불안, 지식, 불쾌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Suh 등(1996)의 연구(신체적 종속변수 35%, 사회심리적 종속변수가 65%)와 비교할 때 신체적 종속변수를 많이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중재의 결과를 파악하는 데는 전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심리, 정서적 변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적 변수는 간호중재의 객관적 결과를 제시하는 과학적 지표이므로 간호학 연구의 과학성을 실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신체적 결과변수를 탐색하고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또한 결과변수를 구체적인 항목별로 비교하여 보면 Jeong 등(2001)이 『기본간호학회지』 논문 중 중재연구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종속변수로 생리적 지수 16.5%, 활력징후 10.3%, 신체기능/체력 8.2%의 순서라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생화화적인 생리지수와 활력징후가 가장 많이 나타나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변수는 결국 논문의 최종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기 다른 간호 분야를 다루는 학회지이지만 중재연구의 내용면에서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연구의 내용 위주로 분석하였으므로 중재연구 방법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실험연구의 경우에는 엄격한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므로 추후 연구방법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성인간호학회지』에 2000년 현재 12년간 게재된 논문에서 중재논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간호중재 연구 게재율이 낮고 최근(1999~2000)에 와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다. 연구디자인에서 이론적 기틀은 17%의 연구에서만 기술되었고 순수실험연구는 1편밖에 없었으며 대부분 유사실험연구였다. 연구대상자는 환자가 대부분이었고 1회 연구시 연구표본은 평균 56명이었으며 주로 병원에서 실행되었다.

간호중재를 적용하는 사람은 주로 간호연구자였으며 집단보다는 개별적인 중재가 더 많았고 횡수는 1회와 2~5회가 많았으며 강의, 유인물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었다. 연구된 중재 방법은 NIC으로 분류한 결과 행위적 영역이 가장 많았고 생리적 기본 영역이 다음으로 많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중재 연구가 전반적으로 저조하므로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간호중재 연구의 구성에서 이론적 개념이나 가설설정같이 연구의 근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능하면 유사실험연구의 경우 무작위표집, 변수조작화 등을 보다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중재연구의 타당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간호중재의 종류는 건강행위 측면과 기본적 생리영역 연구와 더불어 안전, 가족, 건강체계 등의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중재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려해 볼 때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간호중재 연구는 꾸준히 양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주제의 간호중재 방법에 대하여 연구의 이론적 기틀을 근거로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이를 통해 간호이론을

정립하며 간호실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겠다. 한편, 본 연구와 같은 간호중재적용 연구에 대한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간호중재연구의 적용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메타분석이나 질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참고문헌

- Choi, K. S., Song, M. S., Hwang, A. R., Kim, K. H., Chung, M. S., Shin, S. R., Kim, N. C.(2000).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J Korean Acad Nurs 30(5), 1207-1218
- Jeong, I. S., Kang, K. S., Kim, K. H., Kim, K. H., Kim, W. O., Byun, Y. S., Sohng, K. Y., Son, Y. H., Yang, S. H., Jo, H. S.(2001). The research trends in fundamental nursing--Based on the analysis o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J Korean Acad Fund Nurs 8(2), 132-146.
- Kim, M. J., Lee, M. S., Lee, M. H., Lee, H. I.(1994). 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on Master's and Doctoral Theses in Nursing. J Korean Acad Nurs 24(10), 96-114
- Oh, K. S., Sin, H. S., Kim, H. S.(1992). Nursing research issues and trends views from Korea. The Korean Nurse 31(3), 76-87
- Snyder M.(1992). Independent nursing intervention. 2nd ed. New York : Delmar Publishers Inc.
- Suh, M. J., Kim, K. S., Kim, I. J., Son, H. M., Lee, E. N., Kim, H. J., Kim, M. S.(1996). The analysis of trends and contents of intervention research. The Seoul J Nurs 10(2), 123-147
- Suh, M. J., Kim, S. S., Song, M. S., Lee, M. S., Oh, E. G., Shin, K. R., Kim, O. S., Lee, S. J., Lee, Y. J., Oh, H. S., Jung, J. S., Kim, C. K.(2001). An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1989~2000). J Korean Acad Adult Nurs 13(4), 571-580
- Yom, Y. H.(1999). Analysis of the Nursing Interventions Classification(NIC). J Korean Acad Nurs 29(2), 346-360